

신라 중대 만월태후의 자기인식과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

이 현 주*

- | | |
|------------------------------|------------------------|
| I. 머리말 | IV. 만월태후의 자기인식과 정치적 지향 |
| II. 봉덕사의 창건과 ‘성덕대왕신종’ | V. 맺음말 |
| III. ‘성덕대왕신종’ 명문의 이해와 ‘효(孝)’ |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만월태후를 중심으로 신라 중대 왕실여성의 자기인식의 형성, 그에 따른 정치적 입지와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왕실여성은 혼인을 전후로 하여 소속과 역할이 달라진다. 특히 중대에는 진골귀족여성이 혼인을 통해 왕실일원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따라서 왕실혼인은 왕실여성의 자기인식이 형성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왕실여성의 자기인식은 정치적 입지의 확립으로 이어지고, 정치적 역할로 표상된다. 즉 소속에 따른 신분의 변동은 심리적 기반의 이동을 가져오고, 이는 정치적 행위로 표출되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신라 중대의 왕실여성은 혼인을 매개로 하여 진골귀족과 왕실의 접점에 위치한다. 진골귀족여성은 혼인으로 인해 왕실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만월태후는 신라 중대의 왕실여성의 자기인식의 형성과 정치적 역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만월태후는 경덕왕의 왕후이자 혜공왕의 모후이다. 만월태후는 진골귀족여성이었고, 혼인 후에 왕후였으며, 아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태후가 되었다. 나이가 어린 왕인 아들을 대신하여 섭정으로서 통치를 하였던 인물이다. 이에 만월태후의 자기인식의 확립과 그에 따른 정치적 기반의 형성

* 아주대학교 강사.

및 역할을 고찰하였다.

만월태후는 어린 아들을 대신하여 섭정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혜공왕의 정통성은 섭정인 만월태후가 통치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였다. 만월태후의 섭정기에 가장 주목되는 점은 ‘성덕대왕신종’의 완성과 당 왕조와의 적극적인 통교이다. ‘성덕대왕신종’의 완성은 만월태후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졌다. ‘성덕대왕신종’의 명문에 따르면, 만월태후는 경덕왕과 혜공왕의 효성을 장려하였고, 경덕왕의 유언에 따라 종을 주조하였다고 하였다. ‘성덕대왕신종’은 성덕왕의 위대한 업적, 경덕왕의 부모에 대한 효심, 경덕왕의 아들인 혜공왕의 효심의 상징이었다. ‘효’를 매개로 성덕왕-경덕왕-혜공왕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주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성덕대왕신종’은 만월태후가 통치의 정당성과 왕권의 정통성을 주창하기 위한 기제였다.

또한 만월태후는 ‘성덕대왕신종’의 정치적 상징성을 매개로 정치적 실권자와의 연대를 추진하였다. ‘성덕대왕신종’의 주조를 총괄하였던 명단에는 김웅과 김양상의 이름이 있고, 이들을 원구(元舅)와 충신(忠臣)으로 지칭하였다. 특히 김웅을 왕의 원구[삼촌]으로 표현한 것은 만월태후가 김웅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그와의 친연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처럼 만월태후의 섭정기의 통치는 성덕왕-경덕왕-혜공왕으로 이어지는 중대 왕권의 보존을 위한 노력이었다. 이를 위해 만월태후는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실권자와의 연대를 추진하였고, 외부적으로는 당과의 외교를 통해 신라 내부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성덕대왕신종’은 만월태후가 통치의 정당성과 왕권의 정통성을 주창하기 위한 기제였다. 이를 통해 만월태후가 중대의 왕후이자 태후로서 갖고 있던 자기인식의 일면을 알 수 있다. 만월태후는 스스로를 ‘태후’로 규정하고, 어린 왕인 아들의 왕위와 왕실의 정통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정치적 역할을 자임하였다.

주제어: 왕후(王后), 태후(太后), 만월태후(滿月太后),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 효(孝)

I. 머리말

‘성덕대왕신종’은 봉덕사(奉德寺)에 있었던 종으로 봉덕사종이라고도 한다. ‘성덕대왕신종’의 주조 계획은 경덕왕대에 세워졌으나, 종의 완성은 혜공왕 7년인 신혜년(771)에 이루어졌다. 성덕대왕신종의 명문에는 종을 주조한 목적과 과정, 의미가 명문으로 새겨져 있다. ‘성덕대왕신종’의 명문 내용은

신라 중대 왕권의 성격과 왕실 세력의 추이를 밝히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이다.

중대 정치사연구에서 봉덕사와 '성덕대왕신중'에 대해 주목하였다. 특히 해공왕대의 정치사연구와 관련하여 '성덕대왕신중'의 명문은 중요하게 여겨졌다. 봉덕사와 중대 왕실간의 관계를 고찰하기도 하였고¹⁾, '성덕대왕신중'의 명문을 분석하여 정치세력의 추이를 살펴보기도 하였다.²⁾ 또한 해공왕대의 왕실여성, 즉 태후와 해공왕의 왕비를 중심으로 왕과 귀족세력, 즉 정치 세력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³⁾ 이들 연구에서는 기왕의 정치사 연구와 마찬가지로 왕실여성이 속한 정치세력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만월태후의 자기인식, 그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입지와 역할이라는 측면은 간과되었다.

중대의 왕실여성은 진골귀족집단과 왕실 사이의 접점에 위치한다. 중대의 진골귀족여성은 혼인을 전후로 자신이 출생한 진골귀족집단에서 왕실의 일원으로 소속이 변동된다. 왕실여성이 자신의 기반을 어느 곳에 두는지, 또는 어느 집단에서의 소속감이 큰 지에 따라 그의 정치적 입지와 역할이 달라질 것임은 자명하다. 만월태후는 경덕왕대의 왕후였고, 해공왕대의 태후였다. 또 한 태후로서 섭정하였고, 당으로부터 책봉된 왕태비였다.

본 글에서는 만월태후의 정치적 기반의 변화, 그에 따른 자기인식의 확립을 고찰하고자 한다. 만월태후의 자기 인식의 형성, 그에 따른 정치적 지향을 '성덕대왕신중'의 명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봉덕사의 창건 배경을 알아보고, 봉덕사중인 '성덕대왕신중'의 주조와 그에 내포된 의미를 찾고자 한다. 다음으로 '성덕대왕신중'의 명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명문에 등

- 1) 李昊榮, 「新羅 中代王室과 奉德寺」 『史學志』 8, 1974(『新羅三國統合과 麗·濟 敗亡原因研究』, 서경문화사, 2001 재수록); 金壽泰, 「統一新羅期 專制王權의 崩壞와 金邕」 『歷史學報』 99 · 100합, 1983; 李泳鎬, 「新羅中代 王室寺院의 官寺的 機能」 『韓國史研究』 43, 1983; 李基東,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李英愛, 「신라중대 왕권과 봉덕사, 성덕대왕신중」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전덕재, 「봉덕사의 위치와 그 성격」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6, 2015.
- 2) 今西龍, 「聖德大王神鐘銘」 『新羅史研究』, 近江書店, 1933; 李昊榮,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 가지 문제」 『考古美術』 125, 1975(『新羅三國統合과 麗·濟 敗亡原因研究』, 서경문화사, 2001 재수록); 濱田耕策, 「新羅의 聖德大王神鐘と 中代之 王室」 『响沫集』 3, 1981(『新羅國史의 研究 -아ジア史의 視點から-』, 吉川弘文館, 2002 재수록).
- 3) 朴海현, 「해공왕대 귀족세력과 중대 왕권」 『전남사학』 11, 1997; 「신라중대정치사연구」, 국학자료원, 2003; 신정훈, 「신라 해공왕대 정치적 추이와 천재지변의 성격」 『동서사학』 8, 2001; 신정훈,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한국학술정보, 2010; 김수태, 「신라 해공왕대 만월부인의 섭정」 『신라사학보』 22, 2011; 曹凡煥, 「신라 中代末 惠恭王의 婚姻을 통하여 본 政局의 변화」 『신라문화』 43, 2014.

장하는 ‘태후(太后)’와 ‘효(孝)’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월태후의 자기인식과 그에 따른 정치적 지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라 중대 왕실여성의 존재양상을 파악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봉덕사의 창건과 ‘성덕대왕신종’

‘성덕대왕신종’이 안치된 곳은 봉덕사였다. 중대 왕실과 봉덕사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성덕대왕신종’ 주조와 완성이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사료이다.

A 또 (왕은) 황동(黃銅) 12만근을 희사하여 부왕이신 성덕왕(聖德王)을 위하여 큰 종 하나를 주조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니, 그 아들 혜공대왕(惠恭大王) 건운(乾運)이 대력(大曆) 경술(庚戌) 12월에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공인들을 모아 능히 그것을 완성하여 봉덕사에 안치하였다. [이] 절은 곧 효성왕(孝成王) 개원(開元) 26년 무인(戊寅, 738년)에 부왕인 성덕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창건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명(鍾銘)은 ‘성덕대왕신종지명(聖德大王神鍾之銘)’이라 하였다. (성덕왕은 곧 경덕왕의 아버지로 흥광대왕(興光大王)이다. 종은 본래 경덕왕이 아버지를 위하여 시주한 금이었으므로 성덕종(聖德鍾)이라 한다.) 조산대부(朝散大夫) 전태자사의랑(前太子司議郎) 한림랑(翰林郎) 김필월(金弼粲)이 임금의 교지를 받들어 종명을 지었는데, 글이 번다하므로 수록하지 않는다⁴⁾

위의 사료는 『삼국유사』 탐상 편에 나오는 봉덕사에 관한 사료이다. 봉덕사는 효성왕이 738년에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창건한 절이었다. 그리고 경덕왕은 그의 부모의 명복을 빌고자 봉덕사종을 주조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에 ‘성덕대왕신종’은 경덕왕이 일찍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혜공왕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완성되었다. 이처럼 봉덕사와 봉덕사종, 즉 성덕대왕신종은 34대 효성왕(재위 737~742), 35대 경덕왕(재위 742~765), 36대 혜공왕(재위 765~780)에 걸쳐 창건되고, 주조되었다. 봉덕사와 봉덕사종은 효성왕과 경덕왕의 아버지인 33대 성덕왕(재위 702~737)의 명복을 빌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성덕대왕신종이 안치되었던 봉덕사는 어떠한 사찰이었을까. 다

4) 『三國遺事』 卷3, 塔像4, 皇龍寺鍾 芬皇寺藥師 奉德寺鍾.

음은 봉덕사에 관한 사료이다.

B-1) 제33대 성덕왕(聖德王) 신룡(神龍) 2년 병오(丙午, 706년)에 흉년이 들어 인민들의 굶주림이 심하였다. 정미(丁未, 707년) 정월 초하루부터 7월 30일 까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곡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한 사람당 하루 3승(升)으로 하였다. 일이 끝나고 계산해보니 (모두) 30만 5백 석이었다. 왕이 태종대왕(太宗大王)을 위해 봉덕사(奉德寺)를 창건하고, 인왕도랑(仁王道場)을 7일 동안 열고 크게 사면하였다. 이때부터 비로소 시중(侍中)의 직을 두었다.(어떤 책에는 효성왕(孝成王) 때의 일이라고 한다.)⁵⁾

2) 봉덕사성전(奉德寺成典)은 18년(759)에 수영봉덕사사원(修營奉德寺使院)으로 고쳤으나, 후에 (옛 이름인 봉덕사성전으로) 복구되었다.⁶⁾

앞서 A는 『삼국유사』 탐사편의 봉덕사종인 성덕대왕신종을 주조한 내력을 기록한 것이고, B-1)은 『삼국유사』 기이편, B-3)은 『삼국사기』 직관지료, 모두 봉덕사에 관한 사료이다. A와 B-1)은 봉덕사의 창건시기와 주체에 대한 것이고, B-2)는 경덕왕 18년 759년에 봉덕사성전의 명칭을 수영봉덕사사원으로 고쳤다는 기록이다. B-2)에서 봉덕사성전과 수영봉덕사성전은 동일한 성격의 관부로, 봉덕사를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담당한 관청이었다.⁷⁾ 이들 A와 B-1)과 2)의 사료를 통해 봉덕사가 성덕왕대부터 효성왕, 경덕왕에 이르기까지 왕실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와 B-1)은 봉덕사의 창건 연대와 주체를 각각 다르게 전하고 있다. 봉덕사의 창건 연대를 A에서는 효성왕이 개원 26년 무인년인 738년에 부왕이 성덕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봉덕사를 창건하였다고 하였다. 반면 B-1)에서는 707년, 또는 그 이후에 성덕왕이 태종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봉덕사를 창건하였다고 하였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봉덕사가 착공된 시기가 성덕왕대이고, 봉덕사가 완성된 시기가 효성왕 2년인 738년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봉덕사의 착공부터 완성까지 오랜 시기가 걸린 이유는 성덕왕대의 전반의 20여년 간에 걸친 재해로 인해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⁸⁾

5) 『三國遺事』 卷2 紀異 聖德王.

6) 『三國史記』 卷38 雜志7 職官 上 奉德寺成典.

7) 寺院成典은 사원의 보수 및 조영을 담당한 관사였는데, (李弘植, 「新羅 僧官制와 佛教政策의 諸問題」 『白性郁博士頌壽紀念 佛敎學論文集』, 1959, 16쪽), 이후에 사찰의 수리, 조영을 계기로 상실직이 두어졌다. 朴南守, 「사원성전과 불사의 조영체계」 『東國史學』 28, 1994(『新羅手工業史』, 신서원, 1996 재수록).

8) 이호영, 「新羅 中代王室과 奉德寺」, 3-9쪽.

한편 B-1)의 기사로 보아 성덕왕대에 봉덕사를 완성하였고, A의 기사로 보아 효성왕이 봉덕사를 증창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⁹⁾

그런데 경주시 구황동에 위치한 황복사지에서는 '(봉)덕태종사(령)((奉)德太宗寺(令))'이란 명문이 포함된 비편이 발견되었다.¹⁰⁾ 이로 보아 B-1)의 기사대로 성덕왕이 태종무열왕의 명복을 추복하기 위해 '봉덕태종사'를 창건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덕왕대에 봉덕사를 창건한 이유에 대해서 기왕의 연구에서 B-1)의 사료를 근거로, 성덕왕이 중대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태종대왕의 명복을 창건하였다고 보기도 하였다.¹¹⁾ 또한 B-1)의 인왕도량(仁王道場)을 근거로¹²⁾ 중대 왕실의 정통성이라는 정치적 측면 외에 재난 극복이라는 의미가 컸을 것으로 보았다.¹³⁾

그러나 A사료에서 효성왕이 738년에 성덕왕을 추복하기 위해 봉덕사를 창건하였다는 기록은 효성왕이 봉덕사에서 성덕왕을 추복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로 보아 봉덕사가 성덕왕대에는 태종무열왕을 추복하였고, 효성왕대 이후에는 성덕왕을 추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효성왕대 이후로 봉덕사는 태종무열왕과 성덕왕을 추복하는 사찰이 되었던 것이다. 즉 성덕왕이 태종무열왕을 추복하기 위해 창건한 봉덕사에서 효성왕이 성덕왕의 추복도 행했던 것이다.

이로 볼 때 A사료에서 효성왕이 738년에 창건한 것은 봉덕사 자체가 아니라 봉덕사 내에 성덕왕을 추복하기 위한 건물이었을 것이다. 이로서 봉덕사는 태종무열왕에서 성덕왕, 그리고 효성왕에 이르기까지 중대 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사찰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알 수 있다.

9) 李英愛, 「신라중대 왕권과 봉덕사, 성덕대왕신종」, 3-18쪽.

10) 윤선태는 황복사 비편 중 '德太宗寺'는 奉德太宗寺이며, '奉德太宗寺令'이란 봉덕사성전의 장관을 이르는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윤선태,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한국사연구』 108, 2000, 10-13쪽.

11) 蔡尙植, 「新羅統一期の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 8, 1984, 94-95쪽.

12) 이는 부처님이 설한 護國三部經 중 하나인 仁王經을 기반한 仁王道場이 근거이다. 인왕도량은 百高座會 또는 仁王百高座會라고도 부르는데, 인왕경을 강독하는 법회이다. 인왕경의 호국품에 갖가지 재난이 있고, 외적이 와서 파괴하려고 할 때 護國의 법을 시행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전덕재, 「봉덕사의 위치와 그 성격」, 138쪽

13) 이영애는 성덕왕이 봉덕사를 창건한 이유에 대해 선왕 추복을 통해 성덕왕의 정통성을 표방하고, 잦은 재해를 관념적으로 극복하여 왕권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이영애, 「신라중대 왕권과 봉덕사, 성덕대왕신종」, 10쪽); 전덕재는 중대 왕실의 정통성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태종대왕의 명복을 빌어서 이를 통해 재난을 극복하고, 백성과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전덕재, 「봉덕사의 위치와 그 성격」, 137쪽.

신라는 고구려를 정벌한 문무왕 8년(668)부터 성덕왕이 견당사를 보낸 성덕왕 2년(703)까지 35년간 사실상 국교 단절의 상태였다. 성덕왕은 처음 견당사를 파견한 668년부터 거의 매년 당에 숙위사(宿衛使), 하정사(賀正使), 조공사(朝貢使) 등의 성격의 사신을 파견하였다.¹⁴⁾ 성덕왕은 왕권강화와 정치적 안정을 위해 대외적으로 당의 견당사 파견을 통해 외교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내적으로 태종무열왕의 원찰인 봉덕사를 건립하여, 이를 통해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봉덕사는 중대 왕실의 정통성과 밀접히 연관된 사찰이었다. 경덕왕은 봉덕사에 부왕인 성덕왕을 추복하는 ‘성덕대왕신종’을 주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성덕대왕신종’은 해공왕대에 비로서 완성되었는데, 이는 선왕의 추복이라는 명분을 통해 현왕의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봉덕사가 태종무열왕-성덕왕-효성왕으로 이어졌다면, 봉덕사종(성덕대왕신종)은 그 연장선상에서 성덕왕-경덕왕-해공왕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선왕인 부왕에 대한 추복은 ‘효’이자 ‘정통성’과 연관된 사안이었다.

Ⅲ. ‘성덕대왕신종’ 명문의 이해와 ‘효(孝)’

‘성덕대왕신종’ 명문에 대한 판독과 해석은 그다지 논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멸에 의해 판독이 미상인 글자가 있어 여전히 주의를 필요하다. 따라서 ‘성덕대왕신종’ 명문 중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기왕의 판독문을 비교하고, 탁본을 대조함으로써 판독을 확인하고, 해석하고자 한다.¹⁵⁾ ‘성덕대왕신종’의 판독은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¹⁶⁾,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¹⁷⁾, 『조선금석고(朝鮮金石考)』¹⁸⁾, 『신라사연구(新羅史研究)』¹⁹⁾, 『조선종(朝鮮鐘)』²⁰⁾,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 가지 문제』²¹⁾, 『한국금

14) 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 一潮閣, 1997, 45-60쪽.

15) 남동신, 「성덕대왕신종」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의 판독과 해석을 참조하고, 해석의 경우, 부분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16) 劉喜海, 『海東金石苑』, 1831.

17)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1919.

18)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大阪屋號書店, 1935.

19) 今西龍, 『新羅史研究』.

20) 坪井良平, 『朝鮮鐘』, 角川書店, 1974.

21) 이호영,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석유문(韓國金石遺文)』²²⁾, 『한국금석전문(韓國金石全文)』 고대 편²³⁾,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II²⁴⁾을 참조하였다.

행	C	성덕대왕신중 판독	판독
1		聖德大王神鍾之銘	
2		朝散大夫兼太子司議郎翰林郎金弼奧奉教撰	司議郎 ²⁵⁾
3			弼奧 ²⁶⁾
4		1)夫至道包含於形象之外視之不能見其原大音震動於天地之間聽之不能	
5		聞其響是故憑開假說觀三眞之奧載懸舉神鍾悟一乘之圖音夫其鍾也稽	
6		之佛土則驗在於屬賦尋之帝鄉則始制於鼓延空而能鳴其響不竭重爲難	
7		轉其體不養所以王者元功克銘其上群生雖苦亦在其中也2)伏惟	
8		聖德大王德共山河而并峻名齊日月而高懸舉忠良而撫俗崇禮樂而觀風	而 ²⁷⁾
9		野務本農市無濫物時謙金玉世尙文才不意子靈有心老誠四十餘年臨邦	
10		勤政一無干戈驚擾百姓所以四方隣國萬里歸賓唯有欽風之望未曾飛矢	
11		之窺燕秦用人齊晉替霸豈可并輪雙轡而言突然雙樹之期難測千秋之夜	
12	1)	夕於忠臣之輔無言不擇何行有愆乃願遺言遂成宿意爾5)其有司辦事工匠	
13	~	不業監撫庶機早隔 慈規對星霜而起戀重違 嚴訓臨闕殿以	
14	5)	增悲追遠之情轉使益魂之心更切敬捨銅一十二萬斤欲鑄一丈鍾一口立	丈鍾 ²⁸⁾
15		志未成奄爲就世4)㉠今 我聖君行合 祖宗意符至理殊祥異於千	
16		古令德冠於常時六街龍雲蔭灑於玉階九天雷鼓震響於金闕粟米之林雖	
17		離乎外境非煙之色煥煥乎京師此即報茲誕生之日應其臨政之時也㉡仰惟	
18		太后恩若地平化黔黎於仁教心如天鏡獎父子之孝誠是知朝於元舅之賢	太后 ²⁹⁾
19		夕於忠臣之輔無言不擇何行有愆乃願遺言遂成宿意爾5)其有司辦事工匠	
20		畫模歲次大淵月惟大呂是時日月替暉陰陽調氣風和天靜神器化成狀如	畫模 ³⁰⁾ 替 ³¹⁾
21		岳立聲若龍首上徹於有頂之巔潛通於無底之下見之者稱奇聞之者受福	
22		願茲妙因奉翊 尊靈聽普聞之清響登無說之法筵契三明之勝心居	
23		一乘之眞境乃至瓊筍之叢共金柯以永茂邦家之業將鐵圍而彌昌有情無	
24		識慧海同波咸出塵區并覺路臣弼奧拙無才敢奉 聖詔貨班超	弼奧拙 ³²⁾
25		之筆隨陸佐之文述其願旨銘記于鍾也翰林臺書生大奈麻金符院書	符院 ³³⁾
26		其詞曰	
27	㉠	紫極懸象 黃輿啓方 山河鎮列 區宇分張 東海之上 衆仙所藏	
28		地居桃壑 界接扶桑 爰有我國 合爲一鄉 ㉡元元聖德 曠代彌新	元元 ³⁴⁾
29		妙妙清化 遐邇克臻 將恩被遠 與物霑均 茂矣千葉 安乎萬倫	
30		愁雲忽慘 慧日無春 ㉢恭恭孝嗣 繼業施機 治俗仍古 移風豈違	
31	6)	日思嚴訓 常慕慈輝 更以脩福 天鍾爲祈 偉哉我后 盛德不輕	
32		㉣寶瑞頻出 靈符每生 主賢天祐 時泰國平 追遠惟勤 隨心顯成	
33		乃願遺命 于斯寫鍾 人神獎力 珍器成容 ㉤能伏魔鬼 救之魚龍	
34		震威鳴谷 清韻朔峯 聞見俱信 芳緣允種 圓空神體 方顯聖蹤	
35		永是鴻福 恒恒轉重	
36			

22)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23) 허홍식, 『韓國金石全文』 古代 篇, 아세아문화사, 1984.

24) 남동신, 「聖德大王神鍾」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1992.

25) 司議郎: 남동신, 「聖德大王神鍾」; 今西龍, 「新羅史研究」; 坪井良平, 「朝鮮鐘」.
朝議郎: 劉喜海, 『海東金石苑』;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허홍식, 『韓國金石全文』 古代 篇.
叵議郎: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26) 弼奧: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坪井良平, 「朝鮮鐘」;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허홍식, 『韓國金石全文』 古代 篇; 남동신, 「聖德大王神鍾」.
弼罔: 劉喜海, 『海東金石苑』.

37	翰林郎 級澆金弼奧奉 詔撰	
38	待詔大奈麻姚湍書	姚湍 ³⁵⁾
39		
40	檢校使兵部令兼殿中令司馭府令	
41	修城府令監四天王寺府令并檢	
42	校眞智大王寺使上相大角干臣	
43	金崑	
44	檢校使肅政臺令兼修城府令檢	
45	校感恩寺使角干臣金良相	
46	副使執事部侍郎阿澆金體信	金體信 ³⁶⁾
47	7) 判官右司祿館使級澆金忠得	金忠得 ³⁷⁾
48	判官級澆金 忠封	忠封 ³⁸⁾
49	判官大奈麻金 如仍庚	如仍庚 ³⁹⁾
50	錄事奈麻金 一珍	一珍 ⁴⁰⁾
51	錄事奈麻金 張幹	張幹 ⁴¹⁾
52	錄事大舍金 卍卍	卍卍 ⁴²⁾
53		
54	大曆六年歲次辛亥十二月十四日鑄鍾大博士大奈麻朴從鎰	朴從鎰 ⁴²⁾
55	次博士奈麻朴賁奈	朴賁奈 ⁴³⁾
56	奈麻 朴韓味 大舍 朴負佺	朴負佺 ⁴⁴⁾

- 卍卍: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弼奧: 今西龍, 『新羅史研究』; 이호영,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27) 以: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坪井良平, 『朝鮮鐘』.
 而: 남동신, 「聖德大王神鍾」; 이호영,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28) 丈鍾: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이호영,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남동신, 「聖德大王神鍾」; 坪井良平, 『朝鮮鐘』.
 大鍾: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今西龍, 『新羅史研究』.
- 29) 大君: 허흥식, 『韓國金石全文』 古代 篇.
 太后: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今西龍, 『新羅史研究』; 坪井良平, 『朝鮮鐘』;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남동신, 「聖德大王神鍾」.
- 30) 畫模: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畫摸: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이호영,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31) 借: 劉喜海, 『海東金石苑』.
 僭: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替(?): 남동신, 「聖德大王神鍾」.
- 32) 文拙: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坪井良平, 『朝鮮鐘』.
 文: 今西龍, 『新羅史研究』.
 奚拙: 허흥식, 『韓國金石全文』 古代 篇; 이호영,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 가지 문제」.
 奧拙: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남동신, 「聖德大王神鍾」.
- 33) ++白: 劉喜海, 『海東金石苑』.
 卍卍: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今西龍, 『新羅史研究』.
 卍白宛: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皖: 坪井良平, 『朝鮮鐘』.
- 34) 六元: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元元: 남동신, 「聖德大王神鍾」.

C 성덕대왕신종의 명

조산대부 겸 태자사의랑 한림랑인 김필오(金弼奧)가 왕명을 받들어 지음.

1) 무릇 지도(至道)는 형상의 외면에 포함되어 있어 보기는 하지만 그 근원을

- 35) 洪端: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端: 今西龍, 『新羅史研究』.
 姚端: 坪井良平, 『朝鮮鐘』;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 36) 金敬信: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今西龍, 『新羅史研究』.
 金體信: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坪井良平, 『朝鮮鐘』; 이호영,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 가지 문제」;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남동신, 「聖德大王神鐘」.
- 37) 金得: 劉喜海, 『海東金石苑』;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坪井良平, 『朝鮮鐘』.
 金得: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金忠得: 허홍식, 『韓國金石全文』 古代 篇.
- 38) 劉喜海, 『海東金石苑』.
 忠封: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今西龍, 『新羅史研究』; 坪井良平, 『朝鮮鐘』;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허홍식, 『韓國金石全文』 古代 篇; 남동신, 「聖德大王神鐘」.
- 39) 劉喜海, 『海東金石苑』;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今西龍, 『新羅史研究』.
 卞甫: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如仍庚: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남동신, 「聖德大王神鐘」.
 如甫: 허홍식, 『韓國金石全文』 古代 篇.
- 40) 一珍: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남동신, 「聖德大王神鐘」.
 一珍: 坪井良平, 『朝鮮鐘』.
 一玠: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허홍식, 『韓國金石全文』 古代 篇.
- 41)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張幹: 남동신, 「聖德大王神鐘」.
- 42) 劉喜海, 『海東金石苑』;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今西龍, 『新羅史研究』;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坪井良平, 『朝鮮鐘』.
 朴從鎰: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허홍식, 『韓國金石全文』 古代 篇; 남동신, 「聖德大王神鐘」.
- 43)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今西龍, 『新羅史研究』;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坪井良平, 『朝鮮鐘』.
 卞本: 劉喜海, 『海東金石苑』.
 朴賓奈: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허홍식, 『韓國金石全文』 古代 篇; 남동신, 「聖德大王神鐘」.
 朴雲(?)奈: 이호영,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44) 劉喜海, 『海東金石苑』;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今西龍, 『新羅史研究』.
 卞良平: 坪井良平, 『朝鮮鐘』.
 朴負岳: 이호영,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 가지 문제」;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허홍식, 『韓國金石全文』 古代 篇; 남동신, 「聖德大王神鐘」.

볼 수 없고, 대음(大音)은 천지의 사이에 진동하므로 듣기는 하지만 그 울림을 들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설(假說)을 열어서 삼진(三眞)의 오재(奧載)를 관(觀)하게 하고, 신종(神鍾)을 내걸어서 일승(一乘)의 원음(圓音)을 오(悟)하게 하였다. 대저 종이라는 것을 상고해보면, 불토(佛土)에서는 카니슈카 왕(闍膩)대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제향(帝鄉)에서는 고연이 처음 만들었다. 비어 있으므로 울림이 있고 반향이 그치지 않고, 무거우므로 굴리기 어렵고, 몸체를 들어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왕의 큰 공적을 그 위에 새기는 것이니 중생이 괴로움을 떠나는 것 역시 그 안에 있다.

2) 없드려 생각컨대 성덕대왕께서는 덕은 산하(山河)와 같이 드높았고 명성은 일월(日月)과 같이 드날렸다. 훌륭한 인재[忠良]를 등용하여 풍속을 어루만지고 예절과 음악을 승양하여 풍속을 살피셨다. 들에서는 근본이 되는 농사에 힘썼고, 시장에서는 남용되는 물건이 없었다. 당시 사람들은 금옥(金玉)을 싫어하고 문재(文才)를 숭상하였다. 자령(子靈)에 뜻을 두지 않고, 나이든 이의 훈계(老誡)에 마음을 두었다. 40여년 동안 나라에 임하여 정사에 힘써서, 단 한번도 전쟁으로 백성을 요동케 한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사방의 이웃나라와 먼 곳의 귀빈이 오직 왕의 교화를 흠모하는 마음[欽風之望]만 있고, 전쟁을 엿보는 일은 일찍이 없었다. 연(燕)과 진(秦)이 사람을 잘 쓰고 제(齊)와 진(晉)이 교대로 패업을 완수한 일을 가지고 어찌 나란히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돌아가실 날은 예측하기 어렵고 후회하는 밤은 도리어 길다. 돌아가신지 지금까지 34년이다.

3) 근래에 효성스런 후계자인 경덕대왕께서 살아계실 때에 큰 왕업을 계수(繼守)하여 여러 일을 잘 살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어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움이 일어났으며 거듭 아버지를 잃어 텅빈 대궐을 대할 때마다 슬픔이 더하였다.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마음[追遠之情]이 점점 더 슬퍼지고, 영혼에 대한 마음[益魂之心]이 더욱 간절해졌다. 구리 12만 근을 희사하여 1장이나 되는 종 1구를 주조하고자 뜻을 세웠으나, 미처 이루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4) ㉠ 지금의 우리 성군께서는 행실이 조상에 부합하고, 뜻이 지극한 도리에 부합하여, 뛰어난 상서로움이 과거보다 특별하고, 아름다운 덕은 현재에서 으뜸이다. 온 천지(六街)의 상서로운 구름(龍雲)이 옥계(玉階)를 음덕으로 적시고, 온 하늘(九天)의 천둥이 금궐(金闕)에 진동으로 울렸다. 외경(外境)에서는 이삭이 맺힌 벼가 숲을 이루어 늘어서고, 경사(京師)에서는 연기가 없는 빛이 밝게 빛났다. 이러한 상서는 태어나신 날에 보응하고, 정사에 임한 때에 응답한 것이다.

㉡ 우러러 생각컨대 태후(太后)께서는 은덕이 지평(地平)과 같아서 백성들을 어진 가르침으로 교화하고, 마음은 천경(天鏡)과 같아서 부자의 효성을 장려하셨다. 이는 아침에는 왕의 원구(元舅)의 어짐과 저녁에는 충신의 보필을 받을 줄을 알아서 말을 가리지 않고는 하지 않으니(신중하게 하니), 어찌 행동에 허물이 있으리오. 이에 유언을 돌아보고 드디어 오랜 뜻을 이루고자 하였다.

5) 유사(有司)에서 일을 준비하고, 기술자들은 밑그림을 그렸다. 때는 신해년(771) 12월이었다.⁴⁵⁾ 이때 해와 달이 교대로 빛나고 음양의 기운이 조화롭고 바람은 따뜻하고 하늘은 고요하였다. 신기(神器)가 완성되니, 형상은 산이 솟은 듯하고 소리는 용의 소리 같았다. 위로는 유정천(有頂天)의 꼭대기까지 꿰뚫고 아래로는 무저곡(無底谷)의 밑바닥까지 통하였다. 그것을 본 자는 기이하다고 칭송하고 그것을 들은 자는 복을 받았다. 원컨대 이 묘인(妙因)을 받들어 듣는 것으로, 존령(尊靈)이 두루 들리는 맑은 소리[普聞之清響]를 듣고, 말을 초월한 법연[無說之法筵]에 올라 삼명을 꿰뚫는 뛰어난 마음[三明之勝心]에 합치하고, 일승의 진경[一乘之眞境]에 거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왕손이 황금가지처럼 영원히 무성하고, 왕업이 철위산(鐵圍山)같이 더욱 번창하소서. 모든 중생[有情無識]이 지혜의 바다에서 함께 파도치다가 같이 세속을 벗어나서 아울러 깨달음의 길에 오르소서. 신 필요는 줄렬하여 재주가 없음에도 감히 성스런 왕명을 받들어 반고의 붓을 빌리고 육좌의 말에 따라 그 서원하는 뜻을 서술하며 종에 명을 기록합니다.

한림대 서생인 대나마 김부환이 쓰다.

6) 그 사(詞)에 이르되,

㉠ 하늘에 천문이 걸리고 대지에 방위가 열렸으며, 산과 물이 나란히 자리잡고 천하가 나뉘어 뻗었다. 동해 가에 못 신선이 숨은 곳, 땅은 복숭아 골짜기에 머물고 경계는 헤뜨는 곳에 닿았다. 이에 우리나라가 있어 합하여 한 고을이 되었다.

㉡ 크고도 크도다 성인의 덕이여! 세상에 드물 만큼 더욱 새롭다. 오묘하고도 오묘하도다 맑은 교화여! 멀고 가까운 곳에서 능히 이르게 하였다. 은혜를 멀리까지 입게 하고 물건을 줌에 고루 짓게 하였다. 무성하도다 모든 자손이여 안락하도다. 온갖 동포여. 수심어린 구름이 문득 슬퍼지니, 지혜의 태양에 봄이 없구나.

㉢ 공경스럽고 효성스런 후손이 왕업을 이어 기틀을 베풀었다. 풍속을 다스리되 옛 것에 따르니, 풍속을 율아감에 어찌 어김이 있으랴. 매일 부친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항상 모친의 모습을 그리워하였다. 다시 복을 닦고자 하늘종으로 빌었다. 위대하도다 우리 태후시여! 왕성한 덕이 가범지 아니하도다.

㉤ 보배로운 상서가 자주 출현하고 영험스런 부옹이 매양 생겨났다. 임금이 어질때 하늘이 돕고 시절은 태평하고 나라는 평안하였다. 조상을 생각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그 마음을 따라 서원을 이루었다. 이에 유명을 돌아보고 이에 중을 베풀었다. 사람과 귀신이 힘을 도와 진기한 그릇이 모습을 이루었다.

㉥ 능히 마귀를 항복시키고 물고기와 용을 구제할 만하다. 위엄이 동방에 떨치고 맑은 소리는 북쪽 봉우리에 울렸다. 듣는 이나 보는 이가 모두 믿음을 일으켜 꽃다운 인연을 진실로 씨뿌렸다. 원만하게 빈 속에 신기한 몸체가 바야흐르 성인의 자취를 드러내었다. 영원히 큰 복이 되고 항상 장중하리라.

45) 大淵: 대정현(大淵獻). 고감자 십이지의 열두 번째인 해(亥). 즉 신해년(辛亥年: 771) 大呂: 十二月(丑).

7) 한림랑인 급찬 김필오가 왕명을 받들어 짓고,
대조인 대나마 요단이 쓰다.

김교사 병부령 겸 전중령 사어부령
수성부령 감사천왕사부령 병검
교진지대왕사사인 상상 대각간 신
김옹(金僮)
김교사 숙정대령 겸 수성부령 겸
교감은사사인 각간 신 김양상(金良相)
부사 집사부의 사랑인 아찬 김체신(金體信)

판관 우사록관사 급찬 김충득(金忠得)

판관 급찬인김충봉(金忠封)

판관 대나마 김여잉유(金如莛苒)

녹사 나마 김일진(金一珍)

녹사 나마 김장간(金張幹)

녹사 대사 김궐궐 (金궐궐)」

주종대박사 대나마 박종일(朴從鎰)

차박사 나마 박빈내(朴賓奈)

나마 박한미(朴韓味) 대사 박부부(朴負負)

大曆六年歲次辛亥十二月十四日」

성덕대왕신중의 명문은 중의 주조가 완성된 해인 신해년(771) 12월에 작성되었다. 명문에는 성덕대왕신중을 주조한 내력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명문을 작성한 이를 살펴보면, A에서는 조산대부(朝散大夫) 전태자사의랑(前太子司議郎) 한림랑(翰林郎) 김필월(金弼輿)이라고 하였고, C에서는 조산대부 겸 태자사의랑 한림랑인 김필오(金弼輿)라고 하였다. 김필월과 김필오의 월과 오는 동음으로, 동일인의 이름을 동음이자(同音異字)로 표기한 것이다. 김필오가 성덕대왕신중명을 작성한 이유는 그가 왕명을 문서로 작성하고 왕의 자문에 응하던 한림대(翰林臺)의 수장인 한림랑이었기 때문이었다. A에서 김필오가 전 태자사의랑이라고 하였는데, 태자사의랑은 동궁에 속한 관직이다. 김필오는 혜공왕이 태자였을 때 그에게 배속된 관인이었고, 혜공왕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한림랑으로서 문한기구(文翰機構)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C-1)은 종을 주조한 까닭을 밝히고 있다. C-2)는 성덕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C-3)에서는 경덕왕이 종을 주조를 시작하였으나, 죽음으로 인하여 끝까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였다. C-4)에서 “지금의 성군”이라는 표현으로 혜공왕이 덕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C-5)에서 태후(태후)가 유언을 받들어 종의 주조를 완성시키고자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C-6)은 사(司)로서 C-1)~5)의 내용을 시의 형식으로 축약하여 노래한 것이다. 그리고 C-7)은 성덕대왕신종의 주조와 관련한 인물들의 명단이다.

‘성덕대왕신종’ 명문에서 C-5)과 6)에서 ‘태후(太后)’와 ‘후(后)’라는 칭호가 보인다. ‘후(后)’는 ‘왕후(王后)’와 ‘태후(太后)’ 모두에 해당하는 칭호이다. ‘태후’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종의 주조를 시작한 시점을 중심으로 경덕왕의 모후, 즉 성덕왕의妃인 炤德太后로 보기도 하고,⁴⁶⁾ 주조를 완성한 시점, 즉 혜공왕대를 기점으로 그의 모후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이에 경덕왕의 선비(先妃)인 삼모부인,⁴⁷⁾ 또는 혜공왕의 모후인 만월태후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⁴⁸⁾

‘태후’가 누구인지는 C-6)의 사(詞)의 구조를 보면 명확하다. C-2)의 성덕대왕의 공덕은 C-6) ㉠에서 성인의 공덕으로 찬양하고 있다. C-3)에서 경덕왕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종을 주조할 계획을 세운 내용은 C-6) ㉡에서 효성스러운 경덕왕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하여 천종을 만들 뜻을 세운 것을 말하였다. 다음으로 C-4)에서 우리 성군이라고 하여 당시의 왕인 혜공왕대에 들어서 태후의 뜻에 의해 종의 주조를 완성한 것을 이르고 있는데, C-6) ㉢에서는 태후의 위대한 덕을 찬양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의 완성을 찬양하는데, 이 역시 C-6) ㉣과 내용상 조응한다.

이처럼 C-6)의 ‘후(后)’는 사(詞)에 등장하는 칭호로, 본문에서의 ‘후(后)’에 해당하는 칭호와 동일한 인물을 지칭한 것이다. 즉 C-6)의 ‘후(后)’는 C-5)의 ‘태후(太后)’이다. 또한 C-5)에서 태후가 백성을 교화하고, 부자의 효성을 장려하는 덕을 지녔다고 찬양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이는 종이 완성된 시점인 신해년, 즉 혜공왕 7년에 섭정을 하고 있었던 만월태후 임을 알 수 있다.⁴⁹⁾

46) 南東信, 「聖德大王神鐘銘」,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386쪽.

47) 이호영은 “성덕대왕신종명문”에서의 태후와 元舅을 각각 삼모부인과 김웅으로 보았다. 李昊榮,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 가지 문제」 『新羅三國統合과 麗·濟 敗亡原因研究』, 453-455쪽.

48) 金壽泰, 『新羅中代政治史研究』, 一潮閣, 1996.

49) 이현주, 「신라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혜공왕대 만월태후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85, 2017, 426-427쪽.

‘성덕대왕신중’의 주조 목적을 알아보려고 한다. 경덕왕이 처음 종을 주조하고자 하였던 이유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C-3) ‘자규(慈規)’는 어머니를 가리키고, ‘엄훈(嚴訓)’은 아버지를 가리킨다. 이는 C-6) 사(詞)의 ㉠에서도 ‘엄훈(嚴訓)’과 ‘자휘(慈輝)’라 하여, 부친의 가르침과 모친의 모습이라 일컬었다. 경덕왕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종을 주조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신중의 주조를 완성한 것은 해공왕대에 섭정이었던 만월태후의 의지였다. C-4)의 ㉡에 의하면 만월태후는 부자(父子), 즉 경덕왕과 해공왕의 효성을 장려하였고, 결국 경덕왕의 유언에 따라 종을 주조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즉 성덕대왕신중의 주조 목적은 죽은 부모에 대한 추복이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덕왕 5년(706)에 만들어진 ‘황복사석탑금동사리함기(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記)’가 주목된다. 다음은 해당 명문이다.

대저 성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혼탁한 세상에서 백성을 기르고 지극한 덕은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중생을 제도한다. 신문대왕(神文大王)이 오계(五戒)로 세상에 응하고 십선(十善)으로 백성을 다스려 통치를 안정하고 공(功)을 이루고는 천수(天授) 3년(692) 임진년 7월 2일에 돌아갔다. 신목태후(神睦太后)와 효조대왕(孝昭大王)이 받들어 종묘(宗廟)의 신성한 영령(英靈)을 위해 선원가람(禪院伽藍)에 삼층석탑을 세웠다.

성력(聖曆) 3년(700) 경자년 6월 1일에 신목태후(神睦太后)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 높이 극락에 오르고 대족(大足) 2년(702) 임인년 7월 27일에는 효조대왕(孝昭大王)도 승하하였다.

신룡(神龍) 2년(706) 경오년 5월 30일에 지금의 대왕이 부처 사리 4과와 6치 크기의 순금제 미타상 1구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권을 석탑의 둘째층에 안치하였다.

이 복전(福田)으로 위로는 신문대왕(神文大王)과 신목태후(神睦太后) 효조대왕(孝昭大王)의 대대 성묘(聖廟)가 열반산을 베고 보리수에 앉는데 보탬이 되기를 빈다. 지금의 용기대왕(隆基大王)은 수명이 강산(江山)과 같이 오래고 지위는 알천(闕川)과 같이 크며 천명의 자손이 구축하고 칠보의 상서로움이 나타나기를 빈다. 왕후는 몸이 달의 정령과 같고 수명이 겁수(劫數)와 같기를 빈다. 내외 친속들은 옥나무처럼 장대하고 보물 가지처럼 무성하게 열매맺기를 빈다. 또한 범왕(梵王) 제석(帝釋) 사천왕(四天王)은 위덕(威德)이 더욱 밝아지고 기력(氣力)이 자재로와져 천하가 태평하고 항상 법륜을 굴러 삼도(三塗)의 중생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육도(六道) 중생이 즐거움을 받으며 법계(法界)의 중생들이 모두 불도(佛道)를 이루기를 빈다.⁵⁰⁾

위의 명문은 황복사 삼층석탑 안의 금동사리함기에 새겨진 것이다. 명문에

50) 정병삼, 『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1992.

따르면, 692년에 신문왕이 돌아가시자 그의 아내와 아들인, 신목태후와 효조대왕(효소왕)이 종묘의 영령을 위해 삼층석탑을 세웠다. 이후 700년에 신목태후가, 702년에 효소왕이 돌아가셨다. 이후 효소왕의 동모제(同母弟)인 성덕왕이 즉위하였는데, 706년에 석탑 안에 부처 사리 4과와 순금제 미타상 1구,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권을 석탑의 둘째 층에 안치하였다. 황복사의 삼층석탑은 종묘의 신성한 영령, 즉 돌아가신 신문왕의 영령을 위해 세운 것이었다. 이후 성덕왕이 그 탑 안에 사리와 부처상, 불경을 안치한 것은 그의 부모인 신문왕과 신목태후, 그리고 그의 동모형(同母兄)인 효소왕의 명복을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성덕왕 본인과 왕후의 천수(天壽), 그리고 자손 및 내외 친속의 번영, 나아가 증생이 불도를 이루기를 바란다는 기원으로 끝을 맺고 있다. 즉 성덕왕은 그의 부모, 선왕을 추복함으로써 당대와 후대의 번영을 바랐던 것이다. 또한 종묘(宗廟)와 선왕(先王)과의 직계적 정통성 역시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황복사석탑금동사리함기’에서도 선대 왕과의 관계는 현왕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사안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왕의 ‘효’는 곧 정통성의 표상이었던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덕대왕신종’이 안치된 봉덕사는 태종무열왕-성덕왕-효성왕에 이르기까지 왕권의 정통성을 표상하는 사찰이었다. 봉덕사에 안치된 ‘성덕대왕신종’은 성덕왕-경덕왕-혜공왕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의 상징이었고, 이는 ‘효’로써 표상화되었다. 이처럼 만월태후는 ‘성덕대왕신종’을 완성함으로써 성덕왕과 경덕왕, 경덕왕과 혜공왕의 ‘부자(父子)의 효(孝)’를 부각하였다. 만월태후는 ‘효’ 관념을 통해 중대 왕실의 정통 후계자로서의 혜공왕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IV. 만월태후의 자기인식과 정치적 지향

왕실여성은 혼인을 전후로 하여 소속과 역할이 달라진다. 특히 중대에는 진골귀족여성이 혼인을 통해 왕실일원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따라서 왕실혼인은 왕실여성의 자기인식이 형성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왕실여성의 자기인식은 정치적 입지의 확립으로 이어지고, 정치적 역할로 표상된다. 소속에 따른 신분의 변동은 심리적 기반의 이동을 가져오고, 이는 정치적 행위로 표출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만월태후의 혼인을 기점으로 형성된 자기인식을 정치적 입지와 역할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만월은 서불한 김의충(金義忠)의 딸로, 경덕왕 2년(743), 4월에 혼인하여

왕비가 되었다.⁵¹⁾ 만월부인이 혼인하기 전에 경덕왕에게 이미 왕비가 있었다. 『삼국유사』의 왕력 편에서는 경덕왕의 선비(先妃)인 삼모부인(三毛夫人)은 궁중에서 폐출(廢黜)되었고, 후사(後嗣)가 없다고 하였다.⁵²⁾ 또한 『삼국유사』 기이 편에서는 경덕왕의 선비는 아들이 없어서 폐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⁵³⁾ 만월은 경덕왕 2년(743)에 후비(後妃)로 들어왔으므로, 삼모부인이 폐출된 시점은 그 이전임을 알 수 있다.⁵⁴⁾ 만월이 왕비가 된 시점은 경덕왕의 즉위 직후이다. 이로 보아 경덕왕 즉위 초기에 있었던 왕비의 교체는 정치세력 간의 알력에 의한 것이었고, 무자(無子)는 명분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⁵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월이 왕후로서 공고한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차기왕위 계승자, 즉 태자를 출산한 이후였다. 만월부인이 왕자를 출산한 시기는 혼인하고 15년 후인 경덕왕 17년(758)이었다. 경덕왕과 만월이 혼인한 시기는 경덕왕 2년(743)이었다. 아직 동궁, 태자가 태어나기 이전인 경덕왕 11년(752)에 동궁아관(東宮衙官)을 두었다는 기사가 나온다.⁵⁶⁾ 경덕왕과 만월이 아들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정황은 다음의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왕이 하루는 표훈(表訓)대덕(大德)을 불러 말하기를, “집이 복이 없어 아들을 두지 못했으니, 원컨대 대덕께서 상제(上帝)께 청하여 아들을 두게 해주시오”라고 하였다. 표훈이 천제(天帝)에게 올라가 고하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을 구한다면 가능하나 아들은 함당하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길, “원컨대 딸을 바꿔 아들로 해주시오.”라고 하였다. 표훈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 청하니, 상제가 말하기를, “될 수는 있지만, 아들이 되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표훈이 내려오려 할 때 상제가 다시 불러

51)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9 景德王 2年.

52) 『三國遺事』 王歷篇 第35代 景德王.

53) 『三國遺事』 卷2 紀異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54) 삼모부인이 출궁당한 이유에 대해 여러 견해가 제기되었다.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무자(無子)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보기도 하고, (이영호, 「신라의 왕권과 귀족사회-중대 국왕의 혼인 문제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22, 2003, 35쪽) 왕권강화를 위한 외척 세력의 견제로 보기도 하였다. (김수태, 『新羅中代政治史研究』, 114쪽; 조범환, 「삼국유사 왕력편의 이종기사를 통해본 중대 신라의 정치구조-신라 중대 경덕왕의 왕비 교체와 정치적 동향을 중심으로-」 『신라사학보』 30, 2014, 137-138쪽). 반면 경덕왕 즉위 초기에 왕권이 미약한 상황에서 귀족세력 간의 알력이 있었고, 결국 삼모부인 세력이 밀려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전덕재, 「新羅 中代 對日外交의 推移와 眞骨貴族의 動向-聖德王-惠恭王代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37, 1997, 32-33쪽; 신정훈,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46-47쪽) 또한 경덕왕과 삼모부인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김선주, 「신라 경덕왕대 삼모부인(三毛夫人)의 생애와 정치적 의미」 『역사학연구』 44, 2011, 12-14쪽.

55) 이현주, 「신라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혜공왕대 만월태후를 중심으로-」, 430-431쪽.

56)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9 景德王 11年.

말하기를, “하늘과 사람 사이를 어지럽게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스님은 마치 이웃 마을처럼 왕래하면서 천기(天機)를 누설했으니, 이후로는 다시 다니지 말라”라고 하였다. 표훈이 돌아와 천제의 말로써 왕을 깨우쳤으나, 왕은 말하기를, “나라는 비록 위태로울지라도 아들을 얻어서 뒤를 잇는다면 족하겠소”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만월왕후가 태자를 낳으니 왕이 매우 기뻐하였다.⁵⁷⁾

위의 사료는 표훈 대덕이 경덕왕의 청을 받아서 천제(天帝)에게 아들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덕왕이 두 번이나 거듭하여 딸이 아닌 아들을 낳기를 기원하였다는 내용이다. 천제가 딸을 아들로 바꾼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덕왕은 나라가 위태로울지라도 아들을 얻어서 왕위를 계승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경덕왕 17년(758)에 왕자가 태어났고,⁵⁸⁾ 경덕왕 19년(760)에 왕태자로 봉하였다.⁵⁹⁾ 경덕왕의 왕권은 차기왕위계승자인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 보다 공고해졌다. 또한 만월의 위상 역시 아들인 건운을 낳고, 그가 왕태자로 책봉됨에 따라 더욱 확고해졌던 것이다.

765년에 경덕왕이 죽고, 왕태자인 건운이 혜공왕으로 즉위하였다. 혜공왕은 즉위 당시에 나이가 8세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머니인 만월태후가 섭정을 하였다.⁶⁰⁾ 만월태후의 섭정기인 혜공왕 4년(768) 7월에 대공(大恭)과 대렴(大廉)의 반란이 일어나고,⁶¹⁾ 혜공왕 6년(770) 가을 8월에 대아찬 김융(金融)의 반란이 일어났다.⁶²⁾ 이는 만월태후의 섭정에 대한 반란이자 혜공왕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다. 혜공왕 4년(768)에 당으로부터 혜공왕과 만월태후는 각각 신라왕(新羅王)과 대비(大妃)의 책봉을 받았다.⁶³⁾ 이후 혜공왕 8년·9년·10년·11년에 연이어 당으로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 이는 신라 내부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만월태후의 외교적 전략이었던 것이다.⁶⁴⁾

또한 만월태후는 대내적으로 지지 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성덕대왕신종’의 명문 중 C-4) ㉠에서 태후의 공덕을 기리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C-4) ㉠에서 태후의 통치를 도와주는 세력으로 왕의 원구(元舅)와 충신(忠臣)의 존재가 보인다. 만월태후의 정치적 행위를 보좌하였던 원구와 충신

57) 『三國遺事』 卷2 紀異 2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58)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9 景德王 17年.

59)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景德王 19年.

60)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9 惠恭王 元年.

61)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9 惠恭王 4年.

62)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9 惠恭王 6年.

63)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9 惠恭王 4年.

64) 이현주, 「신라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혜공왕대 만월태후를 중심으로-」, 432-433쪽.

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성덕대왕신중명’의 주조명단에 기록된 인물들은 종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교사 그룹과 종 제작의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부사, 판관, 녹사의 관직을 가진 그룹, 그리고 종 제작을 위한 기술자인 박사그룹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⁶⁵⁾ 이들 중 종의 책임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김웅과 김양상, 이 두 사람이다.

‘성덕대왕신중명’의 ‘원구’가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우선 원구라는 표현이 외가 친척을 일컫는 것으로, 만월부인과 혈연적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그가 김웅으로 보았다.⁶⁶⁾ 한편 ‘성덕대왕신중명’에서의 원구를 외삼촌이라고 특정하기에는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고 보기도 한다.⁶⁷⁾ 이에 원구를 장인의 뜻으로 보아서 해공왕의 원비(元妃)인 신보부인의 아버지로 파악하기도 하였다.⁶⁸⁾

그런데 ‘성덕대왕신중’의 명문에서는 ‘왕의 원구(元舅)’라고 표현하였다. 즉 원구라는 표현은 해공왕을 중심으로 한 표현이다. 원구는 해공왕의 외척이나 장인을 일컫는 명칭인 것이다. 또한 ‘성덕대왕신중’의 명문에서 원구는 해공왕이 아닌 만월태후를 보좌하는 인물이었다. 이로 볼 때 만월태후를 보좌하는 원구는 해공왕의 장인이기 보다는 해공왕의 외척으로, 김웅을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속일본기』에서는 김웅을 김순정(金順貞)의 손(孫)이라고 하였다.⁶⁹⁾ 이에 대해 김웅을 김순정의 손자로 보기도 하고,⁷⁰⁾ 아들로 보기도 한다.⁷¹⁾ 전자의 경우,

65) 김수태, 「신라 해공왕대 만월부인의 섭정」, 153쪽.

66) 李昊榮,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 가지 문제」, 13쪽; 濱田耕策, 『新羅國史の研究-アジア史の視點から-』, 186-187쪽; 박해현, 「신라중대정치사연구」, 124-125쪽; 이영호,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93-95쪽; 김선주, 「신라 경덕왕대 삼모부인(三毛夫人)의 생애와 정치적 의미」, 21쪽.

67) 김수태는 ‘성덕대왕신중명’에서 김웅과 김양상을 忠臣에 속하는 인물로 파악하였다. 김수태, 「신라 해공왕대 만월부인의 섭정」, 150-154쪽.

68) 曹凡煥, 「삼국유사 왕력편의 이중기사를 통해본 중대 신라의 정치구조-신라 중대 경덕왕의 왕비 교체와 정치적 동향을 중심으로-」, 233-234쪽.

69) 『續日本紀』卷 33, 寶龜 5年 3月(惠恭王 10年).

70) 『續日本紀』의 孫을 손자로 해석하기도 한. (鈴木靖民, 「金順貞. 金邕論-新羅政治史の一考察」 『朝鮮學報』 45, 1967, 190쪽; 濱田耕策, 『新羅國史の研究-アジア史の視點から-』, 186-187쪽; 박해현, 「신라중대정치사연구」, 124-125쪽; 김선주, 「신라 경덕왕대 삼모부인(三毛夫人)의 생애와 정치적 의미」, 15쪽.

71) 『속일본기』의 孫을 자손의 의미로 보기도 한다. 今西龍, 『新羅史研究』, 533쪽; 이호영,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가지 문제」, 13쪽; 金壽泰, 『新羅中代政治史研究』, 111-112쪽 각주 37) 참조.

문자적 의미 그대로 파악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 정치적 정황을 고려하여 손(孫)을 자손의 의미로 보아 ‘子’ 즉 김웅을 김순정의 아들로 파악한 것이다. 김순정의 죽은 시점이 성덕왕 25년(726년)이고⁷²⁾ 김웅이 김순정을 이어 상제가 된 시점이 해공왕 10년(774년)으로⁷³⁾ 48년의 시간차가 있다. 이로 보아 김웅은 김순정의 손자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김순정은 『삼국사기』 경덕왕 즉위조에 왕비의 아버지로 나온다.⁷⁴⁾ 만월태후의 아버지는 김의충이므로, 순정은 출궁된 경덕왕의 선비인 삼모부인의 아버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삼국사기』와 『속일본기』에 따르면, 김순정-순정의 딸인 삼모부인-순정의 손자인 김웅의 계보가 이어진다. 김웅은 삼모부인의 조카인 것이다. 이에 ‘성덕대왕신종’의 원구를 해공왕의 외삼촌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삼모부인의 아버지 순정과 만월부인의 아버지인 의충을 부자관계, 만월부인과 김웅을 남매관계로 상정하기도 하였다.⁷⁵⁾

김웅은 경덕왕 19년(760년) 4월에 시중에 임명되었는데, 같은 해 가을 7월에 건운을 왕태자로 봉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⁷⁶⁾ 중대에서 시중의 정치적 지위는 국왕의 측근자이다.⁷⁷⁾ 김웅이 시중으로 임명되고, 뒤이어 왕태자 책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가 경덕왕과 왕태자의 지지세력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⁷⁸⁾ 『속일본기』에 의하면, 김순정은 상제(上宰)이고, 이 지위를 손자인 김웅이 계승했다고 하였고, ‘성덕대왕신종명’에서 김웅은 상상대각간(上相大角干)이라고 하였다. 김웅의 정치적 영향력은 만월태후가 섭정인 시기에도 지속되었던 것이다.

김웅과 만월태후와의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왕의 원구로, 경덕왕의 선비인 삼모부인의 형제를 지칭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원구라는 표현은 해공왕을 중심으로 한 표현이고, 해공왕의 외가 친족은 만월태후뿐만 아니라 출궁된 삼모부인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만월태후는 당시 김웅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할 때, 김웅이 해공왕의 원구임을 강조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크다.⁷⁹⁾ 만월태후는 김웅을 해공왕과 자신의 정치세력으로 포섭하고

72) 『續日本紀』卷9, 聖武天皇, 神龜3年 가을 7월 戊子.

73) 『續日本紀』卷33, 光仁天皇, 寶龜5年, 3월.

74)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9 景德王 즉위조.

75) 李昊榮,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가지 문제」, 13쪽; 濱田耕策, 『新羅國史の研究-アジア史の視點から-』, 186-187쪽; 박해현, 『신라중대정치사연구』, 124-125쪽; 이영호,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93-95쪽; 김선주, 「신라 경덕왕대 삼모부인(三毛夫人)의 생애와 정치적 의미」, 21쪽.

76)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景德王 19年.

77)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172쪽.

78) 김선주, 「신라 경덕왕대 삼모부인(三毛夫人)의 생애와 정치적 의미」, 2011, 20쪽.

79) 김수태는 해공왕과 내물왕계인 김웅과의 혈연적 유대관계는 없으나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

자 원구의 호칭으로 친연성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만월태후의 섭정기의 통치는 성덕왕-경덕왕-혜공왕으로 이어지는 중대 왕권의 보존을 위한 노력이었다. 이를 위해 만월태후는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실권자와의 연대를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당과의 외교관계를 활용하여 신라 내부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성덕대왕신종’은 만월태후가 통치의 정당성과 왕권의 정통성을 주창하기 위한 기제였던 것이다.

이로 볼 때 만월태후가 혼인 이후에 갖게 된 자기인식은 왕실의 일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만월태후는 스스로를 중대의 왕후이자 태후로서 규정하고, 어린 왕인 아들의 왕위와 왕실의 정통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정치적 역할을 자임하였던 것이다.

V. 맺음말

만월태후는 어린 왕인 아들을 대신하여 섭정으로서 정국을 운영하였다. 만월태후는 섭정에 대한 반발과 왕위에 대한 위협으로 혼란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통치의 정당성과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여야만 했다. 만월태후의 섭정기에 가장 주목되는 점은 ‘성덕대왕신종’의 완성과 당 왕조와의 적극적인 통교였다. 특히 ‘성덕대왕신종’의 완성은 만월태후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졌다.

‘성덕대왕신종’의 명문에 따르면, 만월태후는 경덕왕과 혜공왕의 효성을 장려하였고, 경덕왕의 유언에 따라 종을 주조하였다고 하였다. ‘성덕대왕신종’은 성덕왕의 위대한 업적, 경덕왕의 부모에 대한 효심, 경덕왕의 아들인 혜공왕의 효심의 상징이었다. ‘효’를 매개로 성덕왕-경덕왕-혜공왕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주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성덕대왕신종’은 만월태후가 통치의 정당성과 왕권의 정통성을 주창하기 위한 기제였다.

또한 만월태후는 ‘성덕대왕신종’의 정치적 상징성을 매개로 정치적 실권자와의 연대를 추진하였다. ‘성덕대왕신종’의 주조를 총괄하였던 명단에는 김웅과 김양상의 이름이 있고, 이들을 원구(元舅)와 충신(忠臣)으로 지칭하였다. 특히 김웅을 왕의 원구(삼촌)으로 표현한 것은 만월태후가 김웅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그와의 친연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처럼 만월태후의 섭정기의 통치는 성덕왕-경덕왕-혜공왕으로 이어지는

단 만월태후측이 정치적 유대를 나타내기 위해 원구로 표현했다고 하였다. 김수태, 『新羅中代政治史研究』, 110쪽.

중대 왕권의 보존을 위한 노력이었다. 이를 위해 만월태후는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실권자와의 연대를 추진하였고, 외부적으로는 당과의 외교를 통해 신라 내부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성덕대왕신종’은 만월태후가 통치의 정당성과 왕권의 정통성을 주창하기 위한 기제였다.

만월태후가 혼인 이후에 갖게 된 자기인식은 왕후이자 태후였다. 만월태후는 왕후이자 태후로서 아들의 왕위와 왕실의 정통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정치적 역할을 자임하였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續日本紀』

劉喜海, 『海東金石苑』, 1831.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1919.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大阪屋號書店, 1935.

坪井良平, 『朝鮮鐘』, 角川書店, 1974.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허흥식, 『韓國金石全文』 古代 篇, 아세아문화사, 1984.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金壽泰, 『新羅中代政治史研究』, 一潮閣, 1996.

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 一潮閣, 1997.

朴南守, 『新羅手工業史』, 신서원 재수록, 1996.

박해현, 『신라중대정치사연구』, 국학자료원, 2003.

신정훈,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한국학술정보, 2010.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이영호,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2014.

李昊榮, 『新羅三國統合과 麗·濟 敗亡原因研究』, 서경문화사, 2001.

김선주, 「신라 경덕왕대 삼모부인(三毛夫人)의 생애와 정치적 의미」 『역사학연구』 44, 2011.

金壽泰, 「統一新羅期 專制王權의 崩壞와 金邕」 『歷史學報』 99·100합, 1983.

김수태, 「신라 해공왕대 만월부인의 섭정」 『신라사학보』 22, 2011.

朴南守, 「사원성전과 불사의 조영체계」 『東國史學』 28, 1994.

박해현, 「해공왕대 귀족세력과 중대 왕권」 『전남사학』 11, 1997.

- 신정훈, 「신라 혜공왕대 정치적 추이와 천재지변의 성격」 『동서사학』 8, 2001.
- 윤선태,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한국사연구』 108, 2000.
- 李英愛, 「신라중대 왕권과 봉덕사, 성덕대왕신종」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영호, 「신라의 왕권과 귀족사회-중대 국왕의 혼인 문제를 중심으로-」 『신라 문화』 22, 2003.
- 李泳鎬, 「新羅中代 王室寺院의 官寺的 機能」 『韓國史研究』 43, 1983.
- 李昊榮, 「新羅 中代王室과 奉德寺」 『史學志』 8, 1974.
- 李昊榮,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가지 문제」 『考古美術』 125, 1975.
- 李弘植, 「新羅 僧官制와 佛教政策의 諸問題」 『白性郁博士頌壽紀念 佛教學論文集』, 1959.
- 이현주, 「신라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혜공왕대 만월태후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5, 2017.
- 전덕재, 「新羅 中代 對日外交의 推移와 眞骨貴族의 動向-聖德王-惠恭王代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37, 1997.
- 전덕재, 「봉덕사의 위치와 그 성격」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6, 2015.
- 조범환, 「삼국유사 왕력편의 이종기사를 통해본 중대 신라의 정치구조-신라 중대 경덕왕의 왕비 교체와 정치적 동향을 중심으로-」 『신라사학보』 30, 2014.
- 曹凡煥, 「신라 中代末 惠恭王의 婚姻을 통하여 본 政局의 변화」 『신라문화』 43, 2014.
- 蔡尙植, 「新羅統一期の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 8, 1984.
- 濱田耕策, 『新羅國史の研究 -アジア史の視點から-』, 吉川弘文館, 2002.
- 鈴木靖民, 「金順貞・金邕論-新羅政治史の一考察」 『朝鮮學報』 45, 1967.
- 濱田耕策, 「新羅의 聖德大王神鐘と 中代の王室」 『响沫集』 3, 1981.
- 今西龍, 『新羅史研究』, 近江書店, 1933.

Abstract

A Study on Self-Awareness of the Manwall in the Middle Shilla Dynasty: an Analysis of ‘Sacred Bell of King Sungduk the Great (聖德大王神鍾)’

Lee, Hyun-ju
(Ajou Univ.)

This study considers formation of self-awareness of royal women in the middle Shilla dynasty and the resulting political position and role focusing on the Manwall. The Manwall is the Queen Dowager. The Manwall is the mother of the King Hyeogong(惠恭王) of last king in the middle Shilla Dynasty.

The Royal women’s affiliation and role change after marriage, and their base of affiliation changes from True-bone status to royal family. For them, royal marriage is a mechanism for formation of self-awareness. Self-awareness leads to establishment of political position and then it is expressed as a political role. The change of status according to affiliation leads to the movement of psychological base, which is expressed as a political role.

Especially royal women in the middle Shilla dynasty are placed at the contact point of True-bone status and royal family through marriage. True-bone status women become a member of royal family. The Manwall is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formation of self-awareness and political role of middle Shilla dynasty royal women.

The Manwall was the queen of King Kyungduk and the queen mother of King Hyeogong. She, who once was True-bone status woman, became queen after marriage and then became queen dowager because her son became king. She also acted as a regent on behalf of her young son. In this study, formation of her self-awareness and resulting formation of political base and role were examined.

The Manwall acted as a regent in place of her young son. The legitimacy of King Hyeogong was an essential element which gave justification for her role as a regent. The completion of ‘Sacred Bell of King Sungduk

the Great(聖德大王神鐘)’ and an active interchange with Tang dynasty of China are the remarkable points during her regency. First of all, the completion of ‘Sacred Bell of King Sungduk the Great(聖德大王神鐘)’ was the result of her enthusiastic will. According to the bell’s inscription, she encouraged the filial piety(孝) of King Kyungduk and Hyegong, and made the bell by King Kyungduk’s will. The bell was the symbol of the great achievements of King Sungduk and filial love of King Kyungduk and King Hyegong who was the son of King Kyungduk. It was intended to claim legitimacy of King Sungduk - Kyungduk - Hyegong through their filial piety. In summary, the bell was the mechanism for advocating the justice of the Manwall’s regency and legitimacy of royal authority.

The Manwall promoted solidarity with political power holder through the political symbol of the ‘Sacred Bell of King Sungduk the Great(聖德大王神鐘)’. KIM Ong and KIM Yang-sang were on the list of people who directed the cast of the bell. They were referred to as Wongu(元舅) and a faithful retainer(忠臣). Especially Kim Ong was referred to as King’s Wongu, which means uncle. It was the Manwall’s intend to emphasize the affinity with him considering his political position.

In short, the Manwall’s rule as a regent was an effort to preserve the royal authority from King Sungduk to Kyungduk and Hyegong in the middle Shilla dynasty. To achieve this, she promoted solidarity with political power holder internally and domestic stability through diplomacy with Tang dynasty externally. As mentioned above, the bell was the mechanism for supporting the justice of her regency and legitimacy of royal authority. This shows one aspect of her self-awareness as the queen and the queen dowager of the middle Shilla dynasty. She defines herself as a queen dowager and plays a political role to protect and preserve the throne of her young son and the legitimacy of the royal family.

Keywords: queen, queen dowager, The Manwall, The Sacred Bell of King Sungduk the Great(聖德大王神鐘), filial piety(孝)

